

제주지역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영역설정과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고혜영,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quality and the Direction of Location Selection for the Concert Hall in Jeju

Hye-Young Ko, Kyung-Soo H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두 분야의 영역이 중복 적용되는 현장에서 그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체계의 정립을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시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경영부문에서 두 영역이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며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두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7개의 가치를 선정하고 각 가치의 하위지표를 정하였다. 이를 제주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간 우선순위로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하위지표 간 우선순위로 체계를 정립하였다. 문화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의 영역을 기본으로 하며 예술경영은 생산성, 공공성, 대응성을 기본영역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행정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문화의 공진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에 대한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경영은 목표달성의 정도, 투입대비 산출의 정도,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문화의 공진화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s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art management, their context, and elements that each concept pursues, and to establish the domains and systems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art management in Jeju. Seven values were select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previous studies, and sub-indicators of each value were determined. Factors were analyzed using the AHP method. Cultural administration is based on the areas of publicity, equity, and transparency, while art management is based on productivity, publicity, and responsiveness. Cultural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a system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co-evolution of culture, and expans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rt management needs to focus on the level of achievement of goals, the level of output versus input, and the system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local cultur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in Jeju with a common aim of the co-evolution of culture and preservation and the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Keywords : Cultural Administration, Arts Management, The Co-evolution of Cultur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Cultural Democracy

본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December 28,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February 22,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두 분야의 영역이 중복 적용되는 현장에서 그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 체계의 정립을 전문가소사를 통하여 시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경영부문에서 두 영역이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며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문화행정의 패러다임은 '신공공관리'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신공공관리론[1]에서는 행정의 논리가 시장의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민간의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과 기업가적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현장에서는 전문예술가, 혹은 예술경영인들을 지방정부의 집행부나 의회에 전문계약직 공직자로 채용하여 도움을 얻고 있다. 예술경영의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관련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대행업무가 강조되고 문화행정에 대한 내용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부문의 경계와 접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1968년 행정학계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권태준[2]이래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행정부문에 다양한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영역이 참여라는 매커니즘으로 접점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작점과 문제제기는 이처럼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이 추구하는 바가 맥락적으로는 다르면서도 현장에서는 공진(共進 coevolution)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가치와 역할체계를 정리하는 단초를 제공해보자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며, 현장에서는 행정가와 예술가들에게 서로 협력적 공유지점을 이해하는 계기를 논리적으로 제공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개념

2.1.1 문화행정의 개념

문화행정은 문화와 행정의 교집합의 개념으로 예술진흥을 위한 행정을 대부분 이해되었었다. 정홍익[3]은 일차적으로 문화행정은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진흥을 승계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문화행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왔다. 임학순[4]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광국 외[5]는 비슷한 맥락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또한 Mulcahy는 “통치화(governmentality)의 프리즘(prism)을 통한 문화부문의 공공개입”으로 접근하여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6]. 개념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상영역 또한 대중문화, 문화콘텐츠산업, 지역축제, 생활문화, 문화외교 등으로 확대되어 포괄하고 있다[7].

2.1.2 예술경영의 개념

예술경영은 예술과 경영의 특성이 복합된 용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관련 연구 역사가 짧은 만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김주호·용호성[8]은 “예술과 관객(소비자)의 만남을 효과적으로 주선하는 방법론으로 문화 촉매활동의 일환으로, 예술 또는 예술가와 관객을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 그리고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을 갖으나 의미를 확대하여 정철현[9]은 “예술가와 관객을 연결하는 예술단체의 관리를 위한 이론으로 예술경영의 목표는 예술과 관객을 만나게 하는 효과적 과정의 생산으로서 협동 작업을 통해 예술을 관객에게 연결시킴으로써 심미성이라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양우·이유리[10]는 “문화예술작품을 기획, 제작, 판매, 유통, 마케팅,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문화예술이 창작자로부터 예술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이르는 거의 전 과정을 다루는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예술경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화 복잡화되는 예술시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2.2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공통적 가치에 대한 논의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공통점은 가치지향이나 예산 측면 보다는 주로 법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많이 나타난다.

공통적 가치의 내용을 살펴보면[11] 첫째, 두 측면 모두 최근에 들어서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투입대비 산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있어서도 투입대비 산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관료제적 성격이다. 합법적 권위에 의한 조직의 운영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행정과 경영의 영역 모두 조직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명령통일, 통솔범위의 원칙, 개선과 참모를 구분하고 책임을 나누는 원리, 집권화와 분권화, 공식화 등의 원칙들은 양측 모두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과 경영 모두, 공동체와 조직,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 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2.3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차별적 가치에 대한 논의

분야의 유사성을 지닌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은 출발점의 차이로 인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목적 측면에서 문화행정은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고, 예술경영은 조직이나 단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성 측면과 연관된다. 주체적으로 문화행정과 예술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이 공공성 측면에서는 다소 영역이 약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도 문화부분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지표가 능률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문화행정도 능률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주최한 축제의 결과를 산업연관모형을 들어 파급효과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예술경영에서는 기계적 능률을 생각한다면 문화행정에서는 사회적 능률 등의 입장을 고려하기도 한다.

셋째, 법적 책임에 있어서 문화행정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술경영은 회사 내의 지침에 주로 의존하고, 상법상의 문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면, 문화행정은 다양한 공법상의 법적 책임은 물론 관련 기관들과의 이해관계와 규정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정치성과의 연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문화행정은 법적 규제와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재화 성격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점이다. 문화행정은 예술을 공공재 혹은 집합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려하고, 예술경영은 문화를 사적 재화나 요금제 등으로 접근한다. 문화행정에서는 수익자와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술경영은 수익자와 부담자가 같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를 가진다.

봉사과 기부측면에서 예술경영이 경계를 없앨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술경영은 사적 재화영역에서 활동한다.

다섯째, 주체 측면으로 문화행정은 정부가, 예술경영은 기업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연하게 나타난다. 국민 혹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 측면은 문화행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지만 이 부문에 대해서도 예술경영이 기여하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보조금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행정은 지원을 하고, 예술경영에서는 이를 받고 간섭을 받는 관계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영역에서 ‘팔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요구하고,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을 경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섯째, 권력수단의 유무에서 문화행정은 강제적 권력 즉, 규제 혹은 강제집행 등의 권력을 가질 수 있으나 예술경영은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에 의한 권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행정은 통제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예술경영은 배제라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이념과 경영이념이라는 용어로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하고 있었다.

행정부문에서 권태준[2]은 행정에 민간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경영의 영역과 다양한 참여라는 메카니즘으로 협력해야 함으로 논의하고 있다. 안해균[12]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합법성, 능률성과 효과성(이 두 개념의 합인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 공익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흥재[13]는 지방문화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서, 자립성, 인본성, 지역성, 창조성 등을 제시했다. 황경수[11]는 기존 행정이념에 덧붙여 대응성과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에 있어서도 김동기[14]가 피터 드러커의 경영이념을 인용하면서, 시장기반, 혁신, 생산성, 물적 및 재정 자원, 수익성, 경영자의 활동 및 육성, 노동자의 활동과 태도, 공공적 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다. 1997년 김병하[15]는 애국 애족적 경영이념이라는 틀을 제시하며 경영에서도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진엽[16]은 예술경영에서 예술에 대한 보호와 문화복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공공성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예술경영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추구 가치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개념, 공통점과 차이점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7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는 가치인 [합법성], 둘째, 시민, 고객의 욕구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가치인 [대응성], 셋째, 민주주의 체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과 조직체계와 관련한 [민주성], 넷째,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능률성(생산성)·효과성]이다. 다섯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인 [공공성], 여섯째, 다양한 활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치인 [투명성·정렬성], 마지막으로 사회정의, 공정한 평등의 가치인 [형평성]이다.

3. 설문조사 분석결과

3.1 설문 지표 및 응답자 현황

3.1.1 설문 지표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7가지 가치를 설문 1단계 지표로 하고, 각 지표에 대한 세부항목은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항목의 수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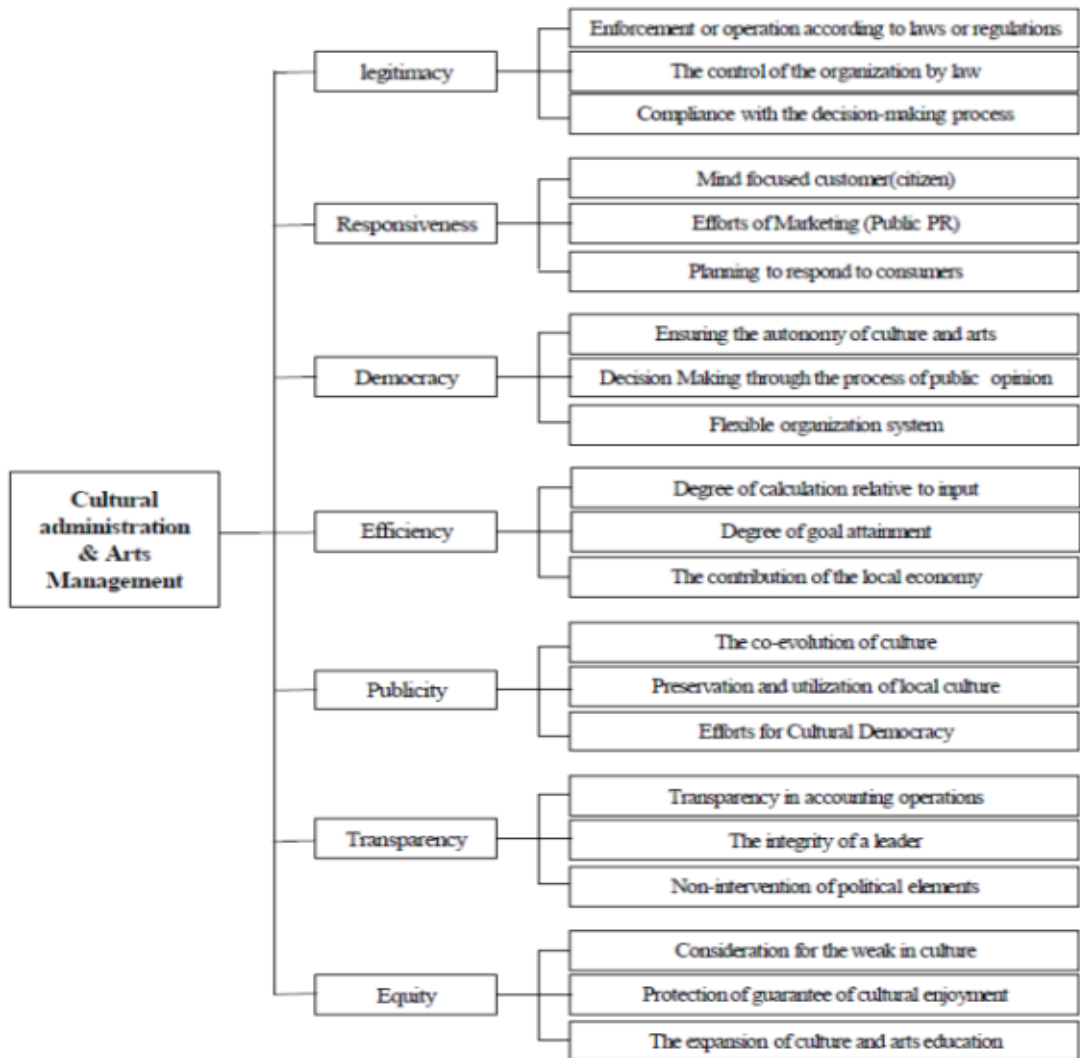


Fig. 1. Survey Indicator System

일하였으며, 기본 이론과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합법성의 항목에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집행이나 운영’, ‘법에 의한 조직 통제’, ‘의사결정 절차의 준수’, 대응성의 항목으로는 ‘고객(시민) 중심 마인드’, ‘마케팅(공공PR)의 노력’, ‘수요자 대응형 기획’, 민주성 항목으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 ‘공론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유연한 조직체계를 정하였다. 생산성(능률성·효과성) 항목으로 ‘투입대비 산출의 정도’, ‘목표달성의 정도’, ‘지역 경제의 기여 정도’, 공공성에는 ‘문화의 공진화’,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정하였다.

투명성(청렴성)에는 ‘회계운영의 투명성’, ‘지도자의 청렴성’, ‘정치적 요소의 비개입’을 세부항목으로 정하였으며, 형평성에는 ‘문화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향수권 보장’,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세부항목으로 정하였다. 이를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세부지표로 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도 우선순위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HP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3.1.2 응답자 현황

설문조사는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행정, 예술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총 2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나, 2부의 응답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나머지

20부를 설문 분석에 상용하였다.

설문 응답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17명(85%), 여성이 3명(15%)이었으며, 대학원 졸업이 16명(8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40대가 8명(4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5명(25%), 50대 4명(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으로는 공무원과 경영인이 각각 6명(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인이 5명(25%), 교수 2명(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설문 분석결과

본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이는 T. Satty(1980)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방법론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할 있는 요소 간의 상대비교를 통한 전문가의 지식, 직관 및 경험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17]. AHP 분석은 3단계의 기본적인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구조의 해체를 통한 계층의 구조화(decomposition), 두 번째는 계층화된 비교 요인들의 상대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자의 평가 작업(judgment), 세 번째는 평가를 통한 결과 값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합과정(synthesis)이다[18]. 의사결정자의 오랜 경험이나 직관 등을 평가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양적(quantitative) 평가기준은 물론 질적(qualitative) 평가 기준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19] 일관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AHP 분석의 일관성은 일관성 비율을 이용하며, 비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이면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0.2 미만이면 허용할 수 있는 수준,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20].

한 지표 당 선정한 3개의 세부항목을 모두 합하여 총 21개의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여 항목들의 순위를 분석하였다.

문화행정의 경우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0.172)’이 가장 우선해야할 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 ‘문화의 공진화(0.143)’, ‘문화예술교육의 확대(0.086)’, ‘문화적 약자에 대한 배려(0.071)’,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노력(0.0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경영은 ‘목표달성의 정도(0.086)’가 가장 우선해야하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대비 산출의 정도(0.082)’,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0.067)’, ‘문화의 공진화(0.064)’, ‘마케팅의 노력(0.06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요소는 다르나 ‘문화의 공진화’

Table 1. Status of survey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 (number, %)
gender	male	17(85%)
	female	3(15%)
occupation	public officer	6(30%)
	professor	2(10%)
	researcher	1(5%)
	artist	5(25%)
academic background	businessman	6(30%)
	high school graduation	0(0%)
	college graduation	1(5%)
	university graduation	3(15%)
age	grad school graduation	16(80%)
	20s	2(10%)
	30s	5(25%)
	40s	8(40%)
	50s	4(20%)
	60s	1(5%)

Table 2. Comparison of Level 2 overall indicator priorities

Cultural administration			Level 2 Overall Indicator	Arts Management		
Level 1 importance	Overall importance	Priority		Overall importance	Priority	Level 1 importance
legitimacy 0.102	0.048	9	Enforcement or operation according to laws or regulations	0.041	14	legitimacy 0.132
	0.009	20	The control of the organization by law	0.026	17	
	0.015	17	Compliance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0.055	7	
Responsiveness 0.045	0.022	13	Mind focused customer(citizen)	0.055	8	Responsiveness 0.151
	0.009	21	Efforts of Marketing (Public PR)	0.063	5	
	0.019	14	Planning to respond to consumers	0.050	11	
Democracy 0.088	0.042	10	Ensuring the autonomy of culture and arts	0.058	6	Democracy 0.140
	0.042	11	Decision 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0.030	16	
Efficiency 0.103	0.013	19	Flexible organization system	0.052	9	Efficiency 0.208
	0.016	16	Degree of calculation relative to input	0.082	2	
	0.049	7	Degree of goal attainment	0.086	1	
Publicity 0.362	0.049	8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economy	0.048	12	Publicity 0.161
	0.143	2	The co-evolution of culture	0.064	4	
	0.172	1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0.067	3	
Transparency 0.117	0.067	5	Efforts for Cultural Democracy	0.042	13	Transparency 0.083
	0.038	12	Transparency in accounting operations	0.035	15	
	0.056	6	The integrity of a leader	0.026	18	
Equity 0.181	0.015	18	Non-intervention of political elements	0.022	20	Equity 0.125
	0.071	4	Consideration for the weak in culture	0.021	21	
	0.019	15	Protection of guarantee of cultural enjoyment	0.025	19	
CI = 0.04				CI = 0.01		

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행정은 ‘유연한 조직체계’, ‘법에 의한 조직 통제’, ‘마케팅(공공PR)의 노력’에 대한 항목이, 예술행정에서는 ‘문화향수권 보장’, ‘정치적 요소의 비개입’, ‘문화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낮은 중요도로 분석되었다.

‘문화향수권 보장’의 경우 문화행정과 예술행정 모두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의 문화정책 방향이 ‘문화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경영에서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문화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부분은 문화행정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연한 조직 체계’의 경우 문화행정은 하위 수준이나, 예술경영에서는 중위 수준으로 행정보다는 경영의 조직 체계가 유연하게 운영되어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케팅(공공PR)의 노력’의 경우 문화행정보다는 예술경영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의 항목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두 분야의 영역이 중복 적용되는 현장에서 그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 체계의 정립을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시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경영부문에서 두 영역이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며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개념,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7개의 가치 지표와 21개의 하위항목을 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합의점으로는 문화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의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도자의 청렴성,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지역 경제의 기여, 법규나 규정 에 의한 집행 및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경영 부문에서는 생산성, 공공성, 대응성의 영역

을 바탕으로 마케팅의 노력,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 고객 중심 마인드를 통한 기획,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문화행정 영역은 예술가의 복지문제는 물론 문화예술의 보호, 문화향수권 보호를 통한 고객들의 문화민주화지향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예술가의 복지 문제가 정책아젠다로써 성립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법제화나 제도화만으로는 전달체계에 의한 예술인들 개개인에게 복지보전이 결과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문화행정 영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복지에 지원하고, 선의의 개입을 하되 '팔길이의 원칙' 맥락에서 간섭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술단체는 물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조직과 기관에서 예술경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능률성과 효과성 등을 반영하는 생산성 못지않게 공공성 부문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 공공성 영역은 문화행정 영역과 다소 중첩되는 점이 있겠으나 그 조직 내에 포함된 예술가들의 복지와 구성원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예술경영 부문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념의 맥락과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전문가조사에 의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요소나 과정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후 공무원과 경영인의 인식의 차이, 각 요소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ferences

- [1] D. J. Bae, Headstart for Public Administration, p.247, Park Young Book, 2007.
- [2] T. J. Kwon. "Establishment of Urba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deology", *Urban affairs*, Vol. 3, No. 6, 1968.
- [3] H. I. Chung, "A Study of Cultural administr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7, No. 1, pp.235-251, 1989.
- [4] H. S. Yim, "An Analysis of Research Areas and Trends in Cultural Policy",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8, pp.1-27, 1996.
- [5] K. K. Park, S. I. Choi, H. J. Joo, "An Evaluation on the Recogni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Regional Cultural Policy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38, No. 2, pp.133-154, 2000.
- [6] K. J. Chae, "A Trend Analysis of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7, No. 4. pp.313-344, 2013.
- [7] J. S. Kim, "A Review of Cultural Policy Research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4, No. 4, pp.105-139, 2016.
- [8] J. H. Kim, H. S. Yong, Arts Managemant, p.311, Gimmyoung Publishers, 2002.
- [9] C. H. Chung, Culturla Policy and Arts Management, p.370, Seoul Economic Management Publishers, 2008.
- [10] Y. W. Park, Y. R. Lee,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search on the Arts Management in the Era of Convergence", *Arts Management Research*, Vol. 20, pp.53-84. 2011.
- [11] K. S. Hwang, Understanding of Cartoon Public Administration, p.343, Guide Publishers, 2008, pp.19-20.
- [12] H. G. Ahn. Contemporary Administration, p. 766, Da San Books, 1987, pp. 128-144.
- [13] H. J. Lee, "The creation of local cultural administration-Ideology and Role of Local Culture Administration in the Autonomous Period", *Local Administration*, Vo.: 45, No. 517, pp. 16-20, 1996.
- [14] D. K. Kim, "New Management Concept from Viewpoint of Mordern Business Management", *The Journal of Management*, Vol. 11, pp. 93-126, 1965.
- [15] B. H. Kim, "The Traditional Patriotic Creeds of Korean Managements and The Entrepreueurs' Views of Valu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Vol. 16, pp. 5-17, 1997.
- [16] J. Y. Kim, "Art Management and Publicnes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Vol. 17, No. 6, pp. 137-154, 2016.
- [17] G. T. Cho, Hierarchical analysis decision making, p.311, Donghyun Publishers, 2003.
- [18] Harker, P., Vargas, L., "The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 33, No. 11, pp.1383-1403, 1987.
- [19] M. C. Kim, S. J. Moon, C. S. Boo, "Study on the Priority Analysis using the AHP in the section of Health tourism Focused on Jeju area",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2, No. 4, pp.281-300, 2008.
- [20] S. W. Lee, A Study on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Marine Tourism Promotion and System Improvement Plan, Korea Maritime Institute, Korea, pp.49-55, 2008

고 혜 영(Hye-Young Ko)

[정회원]



- 2020년 8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202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관심분야>

문화행정, 도시행정, 문화도시

황 경 수(Kyung-Soo Hwa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 박사)
- 2004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6년 11월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 2020년 3월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